

모델과 화가와 의 관계

클로박희숙(화가)

모든 삶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된 욕망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사진이다. 하지만 화가는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화폭에 담아놓으려고 한다. 화가는 그림으로서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림 속에 등장하고 있는 모델들도 마찬가지다. 무명의 모델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화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모델과 화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지만 중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신의 존재로만 묘사되어 왔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나 성서에 등장하는 여인 모두 살아 있는 여체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신의 존재다. 살아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면 대중들은 그다지 감명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신의 모습은 나와 다른 완벽한 존재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인간의 육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세에는 육체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았던 시각 때문에 육체를 예술로 표현할 때에는 고통스러운 영혼을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르네상스의 도래와 함께 육체는 우주의 척도가 되었으며 자유롭고 고상한 영혼

을 지닌 존재로 여겨졌다. 다시 말하면 섬세한 근육과 기품 있고 자신 있는 자세, 육체의 강인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다시 살아난 사실주의 전통은 16, 17세기 들어 미술 공방에서 누드모델을 고용함으로써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미술 아카데미에서 누드모델을 통해 인체를 완벽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누드모델은 대부분 남성으로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여성이 사회 활동하는 것을 죄악시 여겼기 때문에 여성 누드모델들은 화가의 개인 아틀리에에서만 활동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 개인 화실에서 은밀하게 그려지곤 했다. 19세기에 들어 많은 화가들이 여성의 누드를 그리기 시작했고 여성의 누드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이 아니라 현실 속 여성이 그림에서 표현되어진다.

단지 현실속의 여인을 그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델과의 관계 때문에 추문에 얽혀 고충을 받았던 화가도 있다. 모델 또한 유명세를 탔다. 그림이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모델이 된 것이다.

먼저 고야의 <벌거벗은 마하>이다. 이 작품은 <옷을 입은 마하>와 쌍을 이루고 있는데 미술사상 혼치 않다. 그 당시 스페인은 가톨릭 종교의 영향이 커서 여성의 나체화를 용납하지 않았다. 스페인의 나체화로서는 유일한 <벌거벗은 마하>는 신화 속의 여신이 아니라 현실속의 여인의 아름다운 관능미를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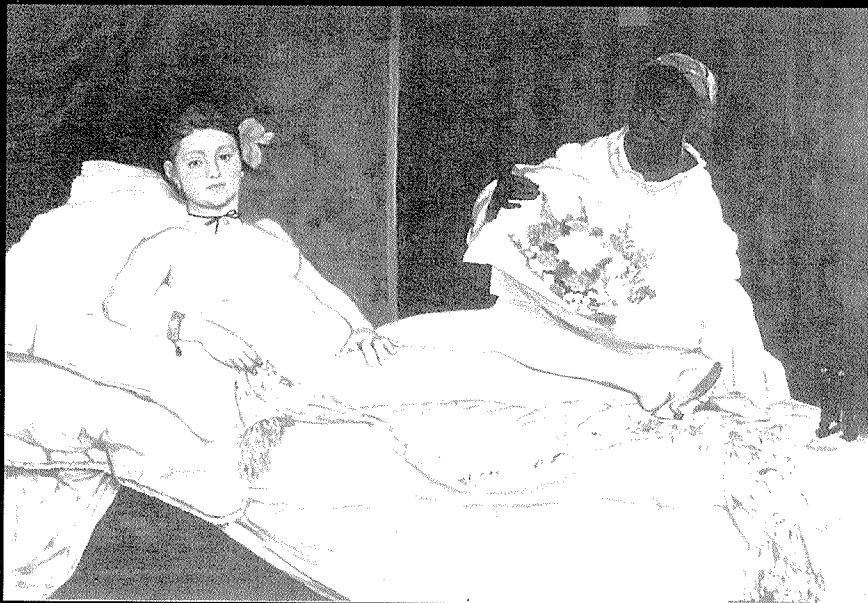
그것은 여신으로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시각에서 본 여성이라는 점이다. 19세기에 와서야 현실속의 여인이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야가 그린 유일한 나체상인 이 작품은 그의 대담한 시도가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벌거벗은 마하>는 고야의 애인 알바공작 부인이 모델이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고야가 알바 공작부인과의 사랑을 공작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화실에서 두 작품을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담하고 선정적인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세력가의 부인과 미천한 신분의 화가와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스페인 전역에 걸쳐 퍼진 이 소문은 종교재판까지 열게 한다. 음란죄로 소환된 고야는 끝까지 모델에 대해 탐구했다.



고야의 <옷을 입은 마하>. 1800년경, 캔버스에 유채, 95 * 188,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마네의 <올랭피아>. 1865년, 캔버스에 유채, 130 * 190, 파리 오르세 미술관



고아가 죽을 때까지 모델에 대해 입을 열지 않자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고 알바 공작 집안에서는 추문을 떨쳐버리기 위해 100년 후 알바 공작부인의 무덤을 공개하기로 했다. 가문의 치욕을 떨치고자 했지만 화가와 모델 알바 공작부인과의 관계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1746-1928)는 젊은 시절 놀기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화가였지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화가 되기를 원했다. 모델의 사회적 지위에 신경 쓰였던 긍정 풍의 부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성취한 고야의 초상화는 그의 작품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야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여인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마네의 <올랭피아>다. <올랭피아>에 등장하는 여성은 벌거벗은 몸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남성에게 도발적인 시선을 던짐으로써 마네는 스캔들에 휩싸인다. <올랭피아>는 마네에게 유명세를 타게 해주었지만 이 작품이 주는 충격은 컸고, 대중들은 그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티치아노의 작품 속 여인이 전형적인 누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면 마네의 <올랭피아>는 포르노 그래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올랭피아> 속 여성이 두른 목걸이는 사창가의 창녀나 카바레의 무희들이 즐겨했던 액세서리였으며 흑인 하인이 들고 있는 꽃다발은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창가에서나 볼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이 미술관에 당당히 나타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도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까지 그림 앞에 세워두어야 할 정도였다.

<올랭피아>는 마네의 정부였던 빅토린 피랑을 그린 것이다. 빅토린의 모델로서의 자질은 <플밭에서의 점심식사>와 <올랭피아>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추문들이 마네를 괴롭힌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녀를 모델로 옷을 입은 정숙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올랭피아>와 <플밭위에 식사>로 온 파리 시내가 그를 탕이라고 몰아 세웠고 이 스캔들로 인해 마네는 20여 년 간 고통 받았다.

인상파 화가 마네(1832-1883)는 프랑스 명문가 출신으로 부르주아적 환경은 그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림의 세계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卍